

국어 존칭일치의 구문 -HPSG의 제약기반 분석-

이 일 호
(호남대학교)

Lee, Il-Ho. 1997. The Honorific Agreement Construction of Korean: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HPSG. *Linguistics*, 5-2, 35-47. The honorific agreement construction means that in Korean the honorific feature [+HON] cooccurs on both subject and verb when a speaker wants to show a respect to the subject's referent. Unlike the subject-verb agreement in English, the Korean honorific agreement is considered to be grammatical even when it violates an agreement relation. It depends on the mental state of a speaker whether or not the subject can be respected, independantly of the existence of the honorific feature [+HON]. Because of this pragmatic property, the honorific agreement construction of Korean must be handled with a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interaction, not with a genuine syntactic approach of Transformational Grammar and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This study is designed to show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the honorific construction of Korea based on HPS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of Pollard and Sag(1994). (Honam University)

1. 서 론

영어의 주어-동사 사이의 일치현상에 해당하는 국어의 일치현상으로는 존칭일치(honorific agreement)의 구문이 있다.¹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은 존칭 어미 '-시'가 주어에 의해서 동사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을 핵어 중심 구 구조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라 부름)의 틀 안에서 언어기호의 유형(type)과 그것의 제약(constraint)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HPSG에서는 언어현상에 대하여 언어기호의 유형과 제약을 바탕

1 일치현상은 동일한 형태적 정보가 언어표현의 두 구성성분에 상호 의존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잉여적 표현이므로 영어의 여러 구문에 나타나는 일치현상과 국어의 존칭일치 현상은 유사한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으로 한 분석방식을 제약기반(constraint-based)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을 통사적 정보에 의존하여 기술하는 것보다는 통사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통합하여 기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존칭 어미 '-시'의 문제는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의 성(gender), 수(number) 그리고 인칭(person)의 일치와 같이 문법적, 통사적 일치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² 왜냐하면 존칭 어미 '-시'를 순수한 통사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HPSG 이전의 도출기반(derivational-based) 기술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국어의 존칭표현은 비현실적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어에서 주어와 존경의 대상이 올 때에도 존칭 어미 '-시'가 오지 않아 일치를 이루지 않는 것은 영어와 같은 인구어들에서 주어와 동사간에 수(number)와 인칭(person)의 일치 자질이 일치하지 않아 비문이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통사적 고찰은 물론 의미적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2. 국어 존칭일치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에 대한 통사와 의미적 특성을 논의한다. 국어 존칭일치 구문은 화자의 심적태도나 청자가 누구이냐에 의해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어 존칭일치 구문에 대한 효과적 설명은 통사적 고찰은 물론 의미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국어 존칭일치 구문의 통사와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먼저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 (1) a. 김선생님이 오시었다.
b. 김선생이 왔다.

일반적으로 동사의 어간에 오는 존칭어미 '-시'는 화자(speaker)에게 있

2 Cho(1990)에 의하면, 지배-결속 이론 내에서도 Choe(1986), Han(1987)과 Moon(1989)은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이 국어의 INFL 내에서 AGR 존재의 경험적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Y.-S, Kim(1988), Y.-J, Kim(1990)과 Heycock & Lee(1989) 등은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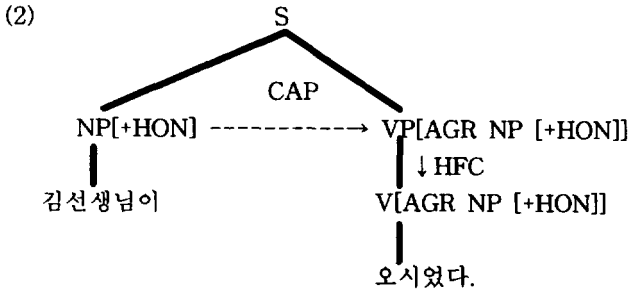
3 Pollard & Sag(1994: 64)은 영어의 일치현상을 설명하는 자신들의 분석을 제약기반(constraint-based)의 이론이라고 하고 변형생성 문법이론의 경우와 같이 일치현상을 통사적인 문제로 다루는 분석 방식을 도출기반(derivation-based)의 이론이라고 대조적으로 부른다.

어서 존경의 대상인 주어와 공기(cooccur)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1a)에서 존칭어미 '-시'는 존경의 대상인 주어 '김선생님'에 의해서 동사의 어간에 나타난다. 그러나 (1b)에서는 (1a)에서 오는 동사의 존칭어미 '-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화자에게 있어서 주어인 '김선생'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의 경우만을 고려하여 동사의 존칭어미 '-시'는 주어의 존칭어미 '-님'과 일치한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이제 까지 변형문법의 전통에서는 영어의 일치현상과 같이 이동규칙으로, 그리고 비변형(non-transformational) 이론을 표방한 일반 구 구조 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GPSG)에서는 통제 일치 원리(Control Agreement Principle: CAP)와 같은 규칙으로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을 설명하였다. (위의 각주 3에서 밝힌 것처럼) Pollard & Sag(1994)에서는 이러한 설명방식을 도출기반(derivational-based)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도출기반이라 함은 일치현상에 대한 설명방식이 통사적인 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결속 이론과 같은 변형이론에서 일치의 문제가 통사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GPSG의 일치 설명방식을 도출기반이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GPSG에서 일치를 다루는 장치인 통제 일치 원리(CAP)는 동사의 의미 유형(semantic type)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GPSG의 일치현상에 대한 설명은 종래의 변형문법에서의 순수한 통사적 설명과는 대조를 보여 준다. 그러나 GPSG에서 통제 일치 원리에 의해 통제자(controller)인 주어 NP와 표적(target)인 VP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치자질 즉, AGR 값이 통제자 NP의 형태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점은 바로 변형이론의 경우와 똑같다. 이러한 점에서 GPSG의 일치이론도 넓은 의미에서 도출기반의 이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GPSG는 일치현상을 의미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통사적 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예로써, (1a)에 대한 GPSG의 설명 방식을 살펴 보자.



(2)에서 주어 NP에는 '김선생님'으로부터 일치 자질 [+HON]이 표시되고 그것은 통제 일치 원리(1)에 의해서 VP에 전달된다. 계속해서, GPSG의 또 하나의 원리인 핵자질 약정(Head Feature Convention: HFC)은 일치 자질을 어휘 범주에 나타나도록 한다.⁴ 결국 존칭일치 자질 [+HON]은 통제 일치 원리와 핵자질 약정에 의해서 주어와 동사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보장된다.

한편, (1b)의 경우에는 (1a)의 경우와는 달리 주어인 '김선생'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어 NP는 일치자질로 [-HON]을 갖게 되고 (2)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어휘 범주에 전달된다. 결국 동사에는 존칭어미 '-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도 영어의 일반적인 주어-동사 사이의 일치처럼 파생기반의 방식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아래의 예를 고려하면 이러한 설명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 (3) a. 김선생이 오시었다.
 b. 김선생님이 왔다.

위의 예에서는 (1)에서 살펴 본 규칙적인 주어 존칭일치 현상을 살펴볼 수 없다. 왜냐하면 (3a)에서는 주어에 존칭어미 '-님'이 오지 않는데도 동사에 존칭어미 '-시'가 오고 있으며 반대로 (3b)에서는 주어에는 존칭어미 '-님'이 오는데도 동사에는 존칭어미 '-시'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4 GPSG의 CAP와 HFC에 대해서는 GKPS(1985; 83-98)를 참고. CAP는 함수인 동사구의 일치자질이 논항(통제자)인 주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결과적으로는 양자가 같아지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2)에서 주어 '김선생님'의 NP에 나타난 자질 [+HON]이 VP에도 나타난 것은 CAP의 적용 결과이다. 또한, HFC는 핵자질이 핵성분과 그것의 모범주에 똑같이 나타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2)에서 동사구(VP)와 동사(V)에 [+HON]이 다같이 나타는 것은 HFC의 적용결과이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국어의 존칭일치 문제를 오직 통사적 현상만으로 다루어 (2)와 같이 분석한다면 (3)의 예는 둘다 정문인데에도 불구하고 비문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의 화용적 의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주어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에 대한 상황이다. (3)에서 존칭어미 '-시'가 동사에 오는 것은 주어에 존칭어미 '-님'이 오느냐의 여부에 있지 않고 오히려 화자가 주어를 존경하고 있느냐의 여부 즉, 주어의 심적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적 태도에 대한 고려는 바로 화용론의 과제이다. (3a)의 경우에서 '김선생'은 존칭어미 '-님'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 화자의 입장에서 존경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동사에 존칭어미 '-시'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b)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또 하나의 상황은 화자, 청자 그리고 주어 사이의 사회적 계층에 대한 것이다. (3a)의 경우는 화자가 주어보다 나이가 더 많고 사회적 신분도 더 좋은 위치에 있지만 청자가 주어보다 현저히 나이가 더 적은 경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3b)의 경우는 주어가 청자 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으나 화자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낮은 경우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계층에서 오는 다양한 존칭일치에 대한 고려는 바로 화용적 문제이다.

우리는 국어에서 (3a)의 경우처럼 주어에 존칭어미 '-님'이 오지 않는 데에도 동사에 존칭어미 '-시'가 오는 화용론적 상황들의 예를 살펴 볼 수 있다.

- (4) a. 아저씨가 오시었다.
- b. *아저씨님이 오시었다.
- (5) a. 새벽이 오신다.
- b. 새벽이 온다.

먼저 (4)에서 '아저씨'는 그 자체만으로 존칭어로 쓰이며, '아저씨' 다음에 '-님'이 오면 비문이다. 이는 '아저씨'라는 명사의 형태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5a)에서 주어인 '새벽'은 화자에게 존경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새벽'은 사물이어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에도 동사에 존칭 어미가 오고 있다. 이는 설사 사물이라 하더라도 화자가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밤새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여 어서 빨리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은 드디어 먼동이 터 오는 것을 바라다보며 '존경'의 마음에서 (5a)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5b)의 경우에는 화자에게 주어인 '새벽'은 존경의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동사에 존칭 어미가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3b)의 경우는 어떠한가? (3b)에서 존칭어미 '-님'이 붙은 주어 '김선생님'이 오는데도 동사에는 존칭어미 '-시'가 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b)는 정문이다. 그것은 문법성의 여부에서 영어나 그 밖에 다른 언어들에서 보여지는 일치 현상과는 비교가 된다. 예컨대, 영어나 불어, 독일어에서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비문이다(Pollard & Sag 1994: 95).

- (6) a. *We is ..., He are ..., You am ...(English)
 b. *Nous est ..., Il sont ..., Vous suis ...(French)
 c. *Wir ist ..., Er sind ..., Sie bin ...(German)

(6)의 예문들은 각각 주어-동사 사이의 일치 규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비문들이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에는 (3b)의 경우를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⁵ 즉, (3b)는 '-님'이 붙은 명사 형태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맞은 표현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김선생님'은 존칭 표현이 아니며 그러한 상황 하에서 동사에는 존칭어미가 올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화자가 '김선생'이라는 주어 명사가 외연(denote)하는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는 전혀 존경의 마음이 없는데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다 그를 '김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화자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존칭어미 '-님'의 사용을 습관적으로 따라버리는 상황에서는 화자가 주어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동사에 존칭어미 '-시'가 오지 않는다 하여 (3b)가 비문이 될 수는 없다. 결국 (3)의 예문들은 존칭 일치의 현상이 통사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화용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 지며 이러한 화용적 요인의 위배는 단순히 비문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존칭 일치의 문제는 영어의 일치현상에서 다루었던 지시전이 현상과 아주 흡사하다.⁶ 예를 들어 (5)의 경우를 다음 (7)과 비교해 보자.

- (7) a.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 / *is getting cold.
 b.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is / *are getting angry.⁷

5 Pollard & Sag(1994: 92-95)은 이러한 이유에서 국어의 존칭일치 현상을 화용적 일치(pragmatic agreement)라고 부른다.

6 지시전이(reference transfer) 현상은 본래 Nunberg(1978)가 지적하였으며 문장 속의 명사구 표현이 갖는 의미적 대상이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일컫는데 HPSG의 일치이론을 세우는데에 중요한 동기를 준다.

7 이 문장은 복수의 해석이 가능하나, 형태상 복수인 주어가 단수의 동사와 일치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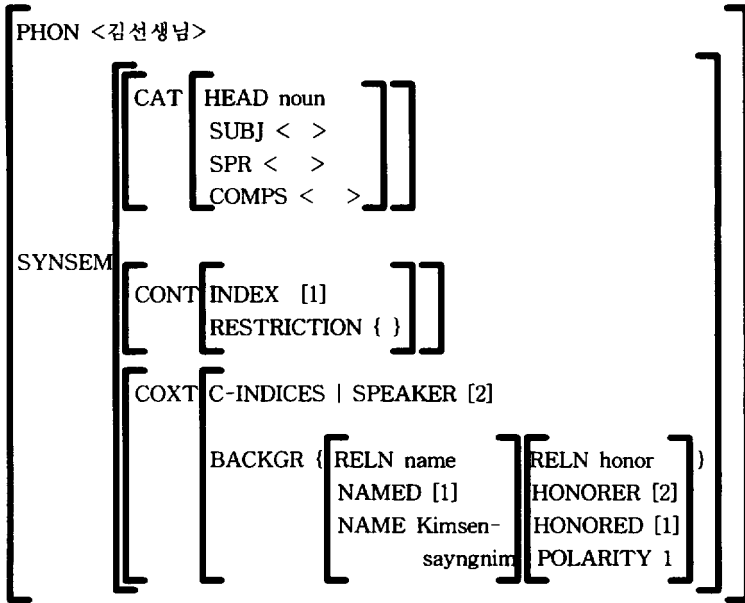
(7a)에서는 *the hash browns*가 음식의 이름을 나타내지만 (7b)의 경우에는 그것을 주문한 사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the hash browns*가 지시하는 대상이 음식물로부터 사람으로 바뀌어 졌다. 따라서 *the hash browns*가 형태상으로는 복수의 명사구이지만 주문한 사람이 한 명인 경우에는 단수로 해석된다. (5)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시전이 현상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어 '새벽'은 원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물로부터 존경의 대상으로 바뀐 경우에는 동사가 존칭어미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표현이라도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지시물(referent)을 내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은 (3)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김선생'은 존칭어미 '-님'이 없이도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김선생님'은 존칭어미 '-님'을 갖고 있음에도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 국어의 존칭일치 문제는 이러한 의미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만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존칭일치 구문의 제약기반 분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존칭일치 구문을 HPSG의 제약기반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우리는 국어의 존칭 일치 현상이 순수한 통사 현상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 영어에서와 같이 존칭 일치 현상을 통사적 분석과 의미, 화용적 분석의 상호 작용의 결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HPSG의 제약기반 이론으로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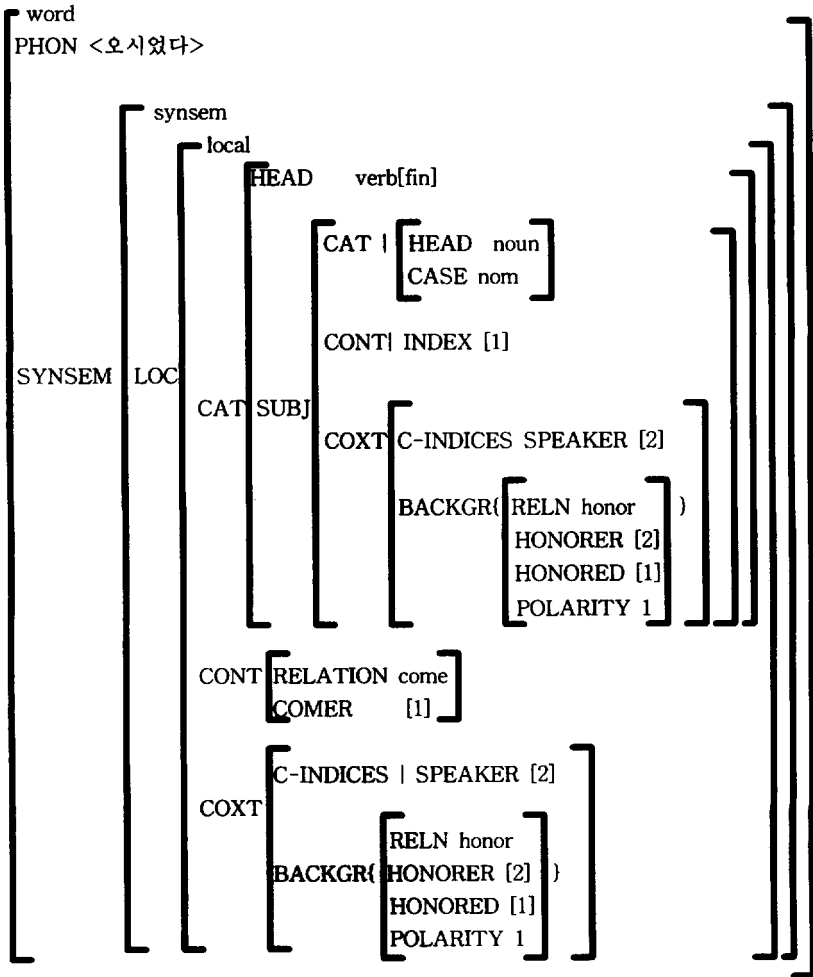
다시 (1a)의 예를 보자. 다음은 (1a)의 주어 '김선생님'에 대한 속성 값 행렬(AVM)을 보여 준다. (8)에서 C-INDICES는 contextual-indices(문맥 지표)를 그리고 BACKGR은 background를 나타낸다.

(8)



HPSG의 제약기반의 일치이론에서 국어의 다양한 화용적인 존칭일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AVM의 CONTEXT 속성이다. (8)의 CONTEXT 속성에는 두 개의 정보가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지표성(indexicality)에 관한 정보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정 화자가 전제로 하는 화용적 배경 지식이다. 전자는 C-INDICES 속성으로 표시되며 후자는 BACKGR 속성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8)의 CONTEXT 속성 값이 나타내는 정보는 대강 다음과 같다: 즉, '김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김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외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존경심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8)에서 번호표 [1]과 [2]의 구조공유(structure sharing)으로 나타난다. 다음에는 (1a)의 동사 '오시었다'의 자질구조를 보자.

(9)



(9)에서 동사 '오시었다'는 하나의 통사적 속성과 또 하나의 의미, 화용적인 속성을 지닌다. 통사적 속성은 그것이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포화 상태(saturated)에 이르기 위하여 명사구 하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14)의 CAT| SUBJ 속성 값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⁸

8 SUBJ 속성 값은 보통으로는 간단히 <NP[nom]_[1]>과 같이 약식으로 나타내나 여기서는 동사 "오시었다"가 요구하는 명사구의 통사, 의미, 그리고 화용 의미를 모두 나타내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의미와 화용적인 속성은 동사에 의해서 하위범주화되는 명사가 외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화자가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한다. 이는 (9)의 CONTENT 속성과 CONTEXT 속성의 속성 값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동사가 하위범주화하는 명사구는 의미적 속성 INDEX를 취하며 이 INDEX에는 번호표 [1]이 온다. 번호표 [1]은 (9)의 AVM에서 여러 군데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사 ‘오시었다’가 주어 명사구를 요구하며 그 주어 명사구는 화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말한다.

이제 주어 존칭 일치의 문제는 향가원리와 의미 속성인 INDEX 그리고 화용적인 CONTEXT 속성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는 자질구조 (8)과 (9)가 향가원리를 준수하며 서로 통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만일 (8)과 (9)에서 POLARITY 속성의 값이 서로 같다면, 그 자질구조들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8)과 (9)에서 그것들은 서로 같으며 따라서 두 자질구조들은 통합한다. 결과적으로 (1a)에서 동사 ‘오시었다’는 주어 ‘김선생님’과 존칭의 면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1b)의 경우에는 (8)과 (9)의 자질구조들에서 속성 POLARITY의 값이 각각 1이 아닌 0으로 표시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1a)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비존칭(unhonorific)의 면에서 일치를 이룬다. 화자는 주어에게 존경의 뜻이 없고 따라서 동사에도 존칭 어미 ‘-시’가 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 (3)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편의상 (3)의 예문을 2장으로 부터 재인용한다.

- (3) a. 김선생이 오시었다.
b. 김선생님이 왔다.

(3)에서 a의 자질구조는 (1a)의 경우와 같고 b의 자질구조는 (1b)의 것과 같다고 가정함으로써 설명한다. 문제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여기서 이미 앞에서 설명한 지시전이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에서 a의 경우에 주어 ‘김선생’은 존칭어미 ‘-님’이 오지 않으나 사회적 신분이 주어보다 더 높은 경우이다. 말하자면 문제의 명사구에 대하여 존칭상의 재해석(re-intepret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용적인 정보를 고려할 때 ‘김선생’은 보통 형태상으로는 ‘김선생님’과 다르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의미속성인 INDEX에 의해서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그것의 자질구조는 ‘김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8)로 나타나게 되며 동사 ‘오시었다’가 하위범주화하는 요구를 지킬 수 있다. 결국 (3’a)는, (1a)의 경우처럼, (8)과 (9)의 자질구조들이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3’a)는 존칭일치를 이루고 있

다고 설명하게 된다.

(3)에서 b는 a의 경우와 정반대로 설명할 수 있다. (3'b)의 주어 '김선생님'의 경우에는 형태상 존칭 어미 '-님'이 오지만 지시물이 비존칭의 대상으로 지시전이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경우 화자에게는 '김선생님'이라는 명사구가 외연하는 사람이 아무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를 '김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습관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선생님'의 표현이 나타내는 대상이 비존칭의 지시물로 재해석될 때 그것은 (1b)의 주어 '김선생'과 동일한 자질구조를 갖게 된다. 결국 그 자질구조는 (1b)의 동사 '왔다'의 자질구조와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3'b)는 비존칭의 면에서 일치를 이룬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HPSG의 국어 존칭일치에 대한 설명방식은 변형문법이나 GPSG에서 가정하고 있는 설명 방식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도출기반의 일치 분석에서는 일치자질이 주어 명사구로부터 술부 동사로 자질이 복사되거나 합병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한 복잡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의 주어 '김선생님'은 통사 단계 (syntactic level)에서 두 개의 다른 형태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⁹ 즉, 동일한 어휘 항목을 하나는 존칭의 것이요 다른 하나는 비존칭의 것을 가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에 반하여 HPSG의 제약기반 분석방식은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휘 형태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표현이 존경의 대상인가 아닌가는 그것의 표현 자체보다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적 지시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을 HPSG의 제약기반 분석방식에 의해서 설명하였다. 존칭일치 구문은 화자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주어로 올 때에 동사에도 존칭 어미 '-시'가 오는 현상이다. 그런데 존칭일치의 경우 어휘 형태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나 동사에 존칭어미가 나타나고 역

9 그러한 실례를 Kim(1988:191)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음성적으로 하나이나 도출기반의 일치이론들에서는 통사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는 아래의 (1a)와 같고 존경의 대상이 아닌 '아버지'는 아래의 (1b)와 같아야 한다.

- (1) a. apeci 1 [...[+HON]...] 'father'
b. apeci 2 [...[-HON]...] 'father'

으로 어휘 형태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나 동사에 존칭어미가 오지 않는 경우에서는 파생기반의 일치이론은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국어의 존칭일치 구문을 HPSG 제약기반 분석방식으로는 통사장치인 항가원리, 의미적인 INDEX 속성 그리고 화용적인 CONTEXT 속성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위에서 지적한 존칭일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어의 표현 그 자체 보다는 화자의 입장에서 그 지시물(referent)이 존경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화용적인 상황에 의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CONTEXT 속성 값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화자의 심적태도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CONTEXT 속성이다.

그런데 HPSG의 자질구조는 그 자체 또 하나의 내부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질구조의 통합과 구조공유의 장치에 의해서 화용적인 대상을 통사적인 대상과 연결시킨다. 다시 말해서 국어의 일치 현상에 대한 기술이 통사, 의미 그리고 화용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국어 존칭일치의 구문은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일치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국어에서 일치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예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 (10) a. 준이 선생님을 뵈었다.
 b. 준이 선생님에게 책을 드리었다.
 c. 선생님이 편지를 쓰시지 않으시었다.

예컨대, (10)의 a에서는 존칭동사 ‘뵈었다’가 오는데 이는 목적어가 화자에게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b에서도 존칭동사 ‘드리었다’가 오는데 간접목적어가 화자에게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오기 때문이다. c에서는 존칭어미 ‘-시’가 본동사 ‘쓰다’와 조동사 ‘않다’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화자에게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오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국어에는 (10a)와 같이 목적어와 동사 사이의 일치현상이 존재하며, (10b)와 같이 간접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그리고 (10c)와 같이 주어와 본동사와 조동사 사이의 일치현상이 존재한다. 그런데 HPSG의 제약기반에 의한 일치이론은 통사, 의미 그리고 화용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일치 구문들에 대해서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이일호. 1993. “의미현상으로서의 일치의 문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임경섭. 1996. “영어 수식어 구문의 어휘 및 제약 기반 분석,” 어학교육, 25-2.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 Choe, H.-S. 1986. “Case, the X-Bar Theory, and Korean Syntax,” (ms). MIT.
- Cho, Euiyon. 1990. “On the Existence of an AGR Element in Korean,” a paper at the annual fall meeting of the Korean Linguistic Society held at Chunpuk National University on Oct. 20, 1990.
- Gazdar, G., E. Klein, G. K. Pullum, and I. A.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Cambridge: Blackwell, an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 H.-S.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eycock, C. and Y.-S., Lee. 1989. “Subjects and Predication in Korean and Japanese,” (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Kim, Yang-Soon. 1988. *Licensing Principles and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Kim, Y.-Z.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s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Moon, Gui-Sun. 1989. *The Syntax of Null Argum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Nunberg, G. 1978. *The Pragmatics of Reference*. Bloomington: IULC.
- Park, Byung-Soo. 1991. “The Semantic and Pragmatic Nature of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An Information-Based Approach,” Kyung Hee University & CSLI, Stanford University.
- Pollard, C. and I.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Press and Stanford: CSLI.
- Sag, Ivan. 1996a. “Notes on Phrases,” (ms). Teaching Materials. Stanford University.

56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

호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ihlee@honam.honam.ac.kr